광주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이 청년식당을 찾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엄마 마음 담긴 절밥 맛있어요”

증심사 · 정안사, 취업준비생 위한 청년식당 ‘인기’

취업난을 이겨내며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식당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가 운영하는 빛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은 지난 2월부터 ‘청년학생들을 위해 엄마들이 情을 담아 만드는 집밥 나누기 프로젝트-청년식당’을 펼쳐 취업준비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식당’은 광주의 대표적 학원가이자 고시원 밀집지역인 대의동 일대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무료로 저녁을 대접하는 사업이다. 메뉴도 여느 일반음식점 못지않게 풍부하고, 건강을 배려한 식자재를 사용해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식당으로 사용하는 사찰음식체험관이 고급스러운 불교 내부 장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포교에도 한몫하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사찰음식체험관을 이용하고 있는 구경식 씨(24, 경찰공무원 준비생)는 “식기가 고급스럽고 음식이 정말 맛있다. 특히 정갈한 음식 덕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기분”이라며 “자원봉사하시는 많은 어른들의 정성이 늘 느껴지는 저녁”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영섭 사무처장은 “때로는 좌절을 느끼면서도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불교계의 따뜻한 밥상을 전하는 일이 삶에 큰 의미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식당은 취업준비생 8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무료 식사를 할 수 있다. 증심사와 정안사(주지 동초)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음식조리는 사찰음식 수강생과 봉사자들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백꽃 아래 詩에 취했네”

선운사, 3월 25~26일 ‘동백 시문학 템플스테이’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전국 사찰마다 봄꽃이 한창인 가운데 고창 선운사가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3월 25~26일 ‘시인과 함께하는 동백 시문학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선운사의 명물인 동백꽃이 만발하는 계절을 맞아 이종배, 정진권 시인을 초빙해 열린 템플스테이는 선운사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 낭송, 동백숲 명상,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동백숲 그늘에 앉아 자신을 돌아보고 유명 시인들과 함께 자작시나 평소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보냈다.

미당 서정주 시인, 최영미 시인, 김용택 시인 등 당대의 내로라하는 많은 시인들이 노래한 고창 선운사 동백숲에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는 겨우내 무거웠던 몸과 마음을 비우고 봄의 향연을 마음껏 즐겼다는 후문이다.

오성호 선운사 템플스테이 팀장은 “봄을 맞아 선운사의 명소라 할 수 있는 동백꽃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기획했다”며 “도량을 수놓은 동백꽃을 비롯해 아름다운 봄꽃들과 저명 시인들이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신행단체 역량 하나로 모으자”

광주 불교계, 연합회신도회 구성에 박차

광주불교의 신행을 이끌어갈 신도회 구성을 위해 재가불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회장 이범식)는 3월 25일 NC웨이브 애슐리에서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도회 출범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범식 신도회장, 송승종 광주광역시청 불자회장, 김정연 광주전남포교사단장, 노기욱 동구청 불자회장 등 재가단체장을 비롯한 실무자 40여 명과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 시각 스님 등 광주불교연합회 임원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도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일정 등을 제시했다.

‘신도회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신도회는 △광주전남지역 재가불자들의 구심적 역할 맡아 불교발전에 기여 △재가불자단체 발전 도모 △직능 · NGO · 학생 · 공무원 등 다양한 불교단체 발굴 및 확대 △교구본사 · 사찰 · 불교단체 · 사부대중 불교네트워크 구성 △봉축행사 지원 등을 기본 목적으로 운영한다.

신도회는 이를 위해 임원진을 구성하고 매년 정기적 회의 열기로 정했다. 임원진은 회장과 부회장(광역단체 불자회장 및 중요사찰 신도회장), 고문(역대 신도회장), 이사(불교계 후원자), 각 부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범식 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불교 발전을 위해 신도회가 꼭 필요하다. 신도회는 재가불자들의 많은 힘을 한 데 모아 부처님의 정법을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도회 구성과 지역 불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향후 각 불교단체장과 사찰신도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도회 운영 기본 계획 발표

임원진 구성 후 정례회의 통해

“지역불교 발전에 이바지”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는 3월 25일 ‘불교신행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가불자들의 역량을 한 데 모을 신도회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연광 스님은 축사에서 “새로운 신도회장과 함께 광주불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신도회를 결성해 달라”고 당부한 뒤 “어느 단체든 참여하는 주체들이 어떤 주인의식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바뀐다. 신도회가 불자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나서 서로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도회는 4~5월 중 결성법회를 목표로 신도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준비모임과 3번의 간담회(불교단체 · 사찰신도회 · 공무원불자회)에 이어 불교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불교사암연합회의 해체와 함께 굴곡을 겪었던 연합신도회는 지난 2014년 2월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의 임기만료로 2년간 공석이었다가, 2016년 1월 광주불교연합회에서 제1대 이범식 신도회장을 임명하며 광주지역 연합신도회 재건에 나서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미진했던 경찰불자회, 재도약 꿈꾼다

광주 동부경찰서불자회 재창립

경승 위촉… 법회·순례 실시도

광주동부경찰서불자회(이하 동부서불자회)가 그간 미진했던 활동을 청산하고, 적극적인 신행 · 전법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동부서불자회는 3월 24일 광주동부경찰서 회의실서 ‘불자회 창립법회 및 경승 위촉식’을 열고, 불자회 회장에 이민주 경무계장을 추대했다.

동부서불자회는 오래전 창립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다가 최근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미진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재창립을 통해 조직구성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새로운 재도약에 나섰다. 이날 창립한 동부서불자회 전체 회원은 40여 명이다. 매월 동구청 불자회와 공동으로 동구지역 사찰에서 합동법회를 개최하고 사찰순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민주 신임회장은 “다시 불씨를 살리는 마음으로 경찰불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회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취임 인사말을 전했다.

광주동부경찰서불자회는 3월 24일 불자회를 재창립하고 적극적인 신행 · 전법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치안과 국민안정에 노력하는 경찰들에게 경승단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불자회를 통해 경찰들도 스스로 건강한 마음을 갖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연광 스님을 비롯해 경승에 위촉된 법선 스님(문빈정사 주지), 인성 스님(관음암 주지), 소궁 스님(관음사 주지), 김영근 서장 등 1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불자회(회장 국승인)도 3월 28일 광주경찰청 소회의실에서 2년 임기의 경승을 위촉했다. 이날 광주경찰청불자회는 경승실장 연광 스님과 경승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 · 무등 스님(천룡사 주지) · 도제 스님(길상사 주지)을 재위촉했다. 또 증현 스님(만경사 주지) · 보응 스님(세심정사 주지) · 혜법 스님(미륵사 주지)을 신규 경승으로 위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 사회복지관 희망 나누리 발대식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과 고창군이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탄탄한 복지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고창복지관은 3월 31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부안면, 심원면 주민 복지위원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민관협력활성화사업’ 제2기 희망 나누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희망 나누리’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도우며 문제를 해결하는 봉사단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민관협력활성화사업 경과보고, 2015년 희망나누리위원 활동소감, 협약식 등이 진행됐다.

대원 스님은 “모든 꽃이 피어야 진정한 봄이 오듯이 주민 한분 한분이 꽃이 되어 행복한 지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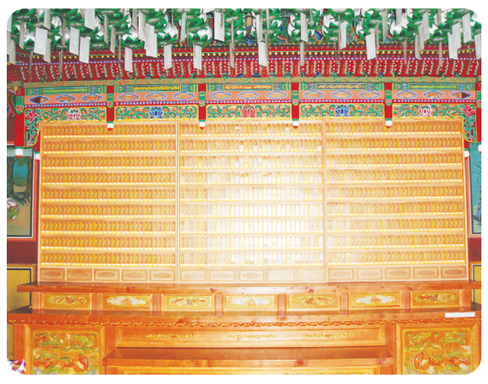
박우정 군수는“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해 보다 세심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과 관, 주민이 힘을 모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군민 행복 고창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보련기획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단등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